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30호
8월 26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및 헌당 감사예배

조용묵 목사, '구원', '전도', '헌신봉사' 기회선용...헌신 격려
김상용 목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바른 복음 전파 매진다짐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인사말
창주중앙순복음교회(당회장 김상용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 및 헌당 감사예배가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감사로 하여 지난 8월 15일(화) 오전 11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헌당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기에 인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감사예배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박주동 목

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하성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선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장종진 장로의 대표기도, 노은순복음교회 안민준 목사의 성경봉독,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 조용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드려져 더욱 뜻 깊었던 이날 조용묵 목사는 엡5:15-17 말씀을 본문으로 '기회선용'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과 헌당감사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전하고 "김상용 목사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과 능력에 깊이 의지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적 경향을 띤 교리나 교회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의 교리를 전파하는 우리 교단의 신앙노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역을 하여 동역



조용묵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자들의 귀감이 되셨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라기는 시간 곧 세월을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는 이를 잘 관리해야한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지키 것으로 만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들라는 뜻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얻는 기회', '전도할 기회', '주를 섬겨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선용하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헌당 및 축하순서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이윤로 목사의 사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총재님 장로와 김택환 장로(건축위원장)의 교회연혁보고와 건축 경과보고, 김택환 장로의 헌건사 및 헌건,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의 수전 및 봉헌사, 봉헌기도, 봉헌헌언이 거행되었다. 김상용 목사는 이어 김택환, 홍재범, 장종진, 이대희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축하 순서로 포항안대교회 배진기 목사외 이목순복음교회 이봉근 목사의 축사, 축하 특별무대로 국립합창단의 공연, 워십 찬양팀의 찬무위임 등으로 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헌당을 축하했다.

이어 충북지교회 전임회장 윤경현 목사의 헌금기도, 이대희 장로의 인사 및 광고, 사회자의 인도로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조용묵 목사의 축도로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및 헌당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는 봉헌사를 통해 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준 모든 선루배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1973년 8월 16일 당시 김상용 집사의 자택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후 2016년 8월 15일 준공감사예배를 드리고 2023년 창립 50주년 기념 및 헌당 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50년간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여 중부 이남의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다.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최근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해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교권강화 종합대책은 2010년에 전교조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경기도, 서울, 광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권침해가 5배 이상 폭증하자 2012년에도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긴급히 교권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것이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시교육청 등은 통계를 왜곡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교권보호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로부터 외면당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되는 교권침해 건수가 미처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을 교권침해건수와 학생인권조례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교연)에서는 교권침해 건수와 교사 명예퇴직 비율 등의 통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면서, 교권회복과 교실회복을 위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해 2023년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최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태가 2012년 8월에도 발생하였다. 2009년 교권침해 건수가 1,570건에서 2010년 2,225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5배 가까이 폭증하자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었던 이주호장관은 2012년 8월 28일 교육부는 긴급히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0년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운동을 추진하면서 전국 각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였고,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 1월에 서울시와 광주시에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2012년 교권침해사태는 2009년에 비하여 5배 가까이 폭증하였다. 교권침해 신고건수가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5배 가까이 폭증하였다. 교사의 명예퇴직 숫자는 매년 급증하여 2009년 명예퇴직자 숫자가 2,711명에서 2011년에는 3,579명, 2012년에는 5,210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하였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심각한 교권침해를 유발하고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하며 급가하는 교사로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편향적 이념에 기반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에 이어 2023년에 2번째이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주호장관은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진단한 것은 매우 정확한 진단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시교육청 등은 통계를 왜곡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와 상관이 없다고, 순박적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교권회복을 바라던 교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2년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듬해 2013년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2014년 이종현 경기 아인초등학교 교감의 경기도내 초중고 3,466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약50%가 교권침해를 받았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한예빈, 2021년 2월)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것을 꺼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7,971건의 교권침해가 2013년에 갑자기 5,562건으로 30% 가까이 급감한 것은, 교권침해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제대로 교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권침해신고건수는 2012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인 교권침해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교권침해 건수와는 달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의 숫자는 2009년에 비하여 2019년의 신청자 숫자가 약 24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건수는 심각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사들의 명예퇴직 비율이 학교내 교권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잘 증거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명예퇴직자 숫자가 예외적으로 급증한 것은 공무원 연금 납부액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이 2015년에 통과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히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로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 8. 9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나의 평안, 나의 기쁨'



조용묵 목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15:11)

행복의 요소 중에 빠트릴 수 없는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울적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쉽게 고갈됩니다. 후유증도 생기고 신기루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은혜로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천송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길에 접히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갈라지며 매 맞은 몸의 고통이 점점 더하여 가므로 밤이 깊어 가도 바울과 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경중 되어 그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른 장면은 우리에게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소요 사건이 생김으로 인하여 바울은 죄수처럼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마당 구둑되어 있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다른 죄수들과 함께 친위대의 백장수 호송 하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출발하였으나 얼마 못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선원과 상인과 군인과 여행객 그리고 죄수까지 모두 27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계속되어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는 거센 풍랑에 밀려 지중해를 표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에 떠는 날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폭풍은 계속되고 배는 난파되어 가는 최악의 상태에서 바울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의는 아무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아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모두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 27:22~25).

평안하고 확신에 넘친 바울의 태도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그 후 바울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진두지휘하여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가져

목회자유가족자녀돕기운동본부, 총 41명 수혜

목회자유가족자녀돕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목사, 기감 전 감독회장)는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 8월 8일 오전 11시 감리회본부교회에서 갖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총 41명의 목회자유가족들에게 508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사무총장 최우성 목사의 사회로 회계 김수일 목사의 기도, 하늘추모공원 대표 주은형 장로의 성경봉독, 박나영·박민영 자매의 은혜로운 클리넷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은 수 14·6~12 말씀을 본분으로 '크리스천 뉴 리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크리스천 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하라게 주신 것이다. 어떠한 환경이나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도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교회 한희철牧사는 격려사를 통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고맙고 따뜻한 격려를 잊지 말고 또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선교국 태동화 총무는 축사를 통해 "이 장학금 수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감리교회의 자랑이다. 이 일을 14년간 계속

해오신 김진호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이 일

이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 김진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의 도움에 눈물이 난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최우성 목사의 광고 후 서울연회 건 감독 윤운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국회조찬기도회 두상달 장로 초청, 강연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제3차 교계지도자 간담회 가져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노근재 목사)는 11일 서울 가정문화원에서 국가조찬기도회 이사장 두상달 장로를 초청, 제3차 교계지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장로는 가치있는 삶에 대해 강연하며 "도전 정신을 가져라. 지금 도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

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지으신 감동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길 기대하리"고 권면했다.

또한 "올타리를 깨고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해야 된다"며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 직장, 모든 관계

에서 변화의 전환점을 맞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그밖에 "가정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사랑하라"며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고 다시 뒤돌아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기쁨이다.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1호 부부강사로 가정사역에 힘써온 두 장로는 (사)가정문화원을 열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왔다. 특히 가정 관련 전문강사로 유명할 뿐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CEO이면서 국가조찬기도회 등 여러 단체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한기총, 한교총과 통합 위한 임시총회

9월 7일 '한기총'으로 하되, 정관은 한교총 것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8월16일 제34·3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회와의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23명 참석, 20명 위임으로 개최된 임원회는 개회선언과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 등이 이뤄졌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통합준비위원회가 한교총과 합의한 내용을 브리핑했고, 장시간 토의가 이어졌다. 통합 후 연합기관의 이름은 '한기총'으로 하되, 정관은 한교총의 것을 따르자는 방안 안에 있어 기본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오랜 논의 끝에 한기총 임원회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임시총회를 개최기로 하고, 한교총의 정관을 검토한 후 필요시 조정된 정관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한국기독교총

회총회장 이순자 목사, 교단 가입), 사단법인 성민원대표 권태진 목사, 단체 가입)의 가입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부흥과 회복을 위한 비전콘퍼런스

하늘숲성결교회, 송실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성 하늘숲교회(김기성 목사) 비전콘퍼런스가 지난 8월 14~15일, 서울 은평구 송실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됐다.

하늘숲교회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이번 비전콘퍼런스는 평신도들의 강의와 간증 위주로 진행됐으며, 사흘간 13명의 강의와 5번의 간증, 2차례 토크쇼가 이어졌으며 모두 평신도들이 강에 섰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하늘숲

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 이번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김기성 목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한 강사들이 아니라 오라려 자신들과 똑같은 성도들이어야 한다. 자신들과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삶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평신도 강사들을 세우게 됐고, 여기에 참석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진짜가 맞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콘퍼런스는 강의와 간증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참석자들은 장시간 강의에 집중하고, 지나칠 정도로 크게 이탄을 외치며 뜨겁게 호응했다.

컨퍼런스 참여자 강혜정 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로 20년 평생을 살다가 하늘숲교회를 만나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것을 고백하며 자신이 동성애자로 살 때는 한달에 40만원을 벌면서 하루를 벌며 하루를 쓰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며 연매출 80여의 일인기업 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실재의 정체성, 죄의 정체성, 잘못된 성의 정체성까지 바꾸어 주시는 분이요 증언했다.

제 78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야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사진)는 지난 8월 11일(금) 여전도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와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단협의회(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인교단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제78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광복을 하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한바탕되어 기도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신교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교회총회 총무 허용준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신교단협의회 찬양,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형렬 목사는 시 13:1-6 말씀을 본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애국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애국심'을 드높이며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개혁신교회가 되어야 한다. 개혁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사랑의 하

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겨 사랑, 화평, 화평, 오직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운운, 절제와 같은 귀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전국 복음을 전파해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는 우리 기인교단은 동성애 반대, WCC 반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꽃대를 삼고 믿음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보수 기인교단들이 되시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한국해비타트 가수 '선'과 함께 '815런' 진행

8,150명 15억여 원 모금...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에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선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2023 815런'을 진행하며 총 15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815런'은 독립유공자에 대해 감사함을 되새기고 '잘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광복절 당일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 거리(3.1km / 4.5km / 8.15km)를 달리고, 참가비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기부 마라톤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인원인 8,150명의 개인 참가자를 만들었으며 10일 만에 모집됐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된 815런에서 선은 32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7시간 49분 47초에 81.5km를 완주하며 놀라움을 선사했다.

'복음통일은 예수이름으로!' 주제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8.15광복절 연합기도회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총재 엄기호 목사, 대표회장 차정현 목사)가 8.15광복절 78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6일(수) 성령사랑교회(엄기호 목사)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복음통일은 예수 이름으로'를 주제로 드린 기도회에서는 기도의 준비위원장 왕영신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오종철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차정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예수 이름으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차 목사는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며, 선포하라"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예수이름을 믿어야 살고, 예수이름을 부를 때 은혜와 축복을 받게되며, 예수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설교했다.

이어 부총재 전태규 목사와 상임회장 노수우 목사, 감정일 목사, 정동화 목사가 각각 '민족복음화 통일'을 위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 '세계 복음화 사역을 위해'를 주제로 놓고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총재 엄기호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으며,

상임총재 고병수 감독, 부총재 양평환 감독이 각각 축사를 통해 기도회를 축복했다. 한국기도는 공동회장 김영길 목사가 인도했으며 박철규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모두 마쳤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만세삼창과 애국가 제창 등의 순서를 가지며 애국정신을 고취, 광복절 78주년을 의미 있게 기념했다.



영적침체기 한국교회가 살길은 기도뿐

'2023 기도컨퍼런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 땅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더욱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2023 기도컨퍼런스'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라는 주제로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대로 소재 대전 한빛교회(담임 백용현 목사)에서 열려 기도목회

중심사역의 부흥과 노후를 함께 공유했다. 이번 기도컨퍼런스는 제주도를 비롯한 속초, 완도, 고흥 등 전국 각지에서 5천 명이 넘는 중보기도 사역자, 목회자, 평신도 등이 참석했다.

기도컨퍼런스에 앞선 미디어 데이에서



백용현 목사는 "한국교회는 급속한 교인 감소와 함께 교회들이 없어지고 영적 침체로 인한 세속, 인본, 물질주의가 복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살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목사는 이어 "이번 기도컨퍼런스의 개최 목적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기도연합의 시간,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시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고 밝히고, "3일간 계속되는 컨퍼런스를 통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 세계를 변화시키자"고 덧붙였다.

■ 생명의 말씀 ■



정석현 목사

• 군전교부위원장
• 경기남 지방회 전임회장

오늘 본문은 장자 이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할 구원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가 선지자로 동일하게 말씀하였습니다.

1. 메시아의 구원사역은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사 42:1).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고, 자신들을 제사장 삼아 세상

메시아의 구원 사역 사 42:1-4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배척하고 이방인 구원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행한 행위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으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요 1:11)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까지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고, 또한 그들이 이일로 시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행 28:28, 롬 11:11)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되고, 잘살고,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2. 메시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사 42:2).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나 권세나,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양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란하게 소리치며 자랑하거나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제로 끌려 나온 자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발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근본 성품은 겸손 자체입니다.(렐 2:6-8)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마 20:28) 사람들은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내가 했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며 자랑하고 우쭐대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마 8:3-4)

3. 세 번 째는 메시아는 상한 갈대와 꺾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사 42:3).

하나님은 인간을 갈대와 꺾지는 등불에 비유하며 말씀하였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연약해 쓰러지고,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와, 꺾져 가는 등불과 같이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이제 저

불만까지면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을보면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린다고 하며 자신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눅 18:13).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불 때 상한 갈대를 보면 아무 쓸모 없고, 보기에다 흉측하기에 잡초처럼 뽑아서 없애 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꺾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넘어지고, 꺾어진 인생 속에서 아무런 소망과 기쁨도 없이 살

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큰 군락을 이루며 큰 천년을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 부딪치는 소리는 오뉴월 개구리 소리보다 수 백배 더 크게 들리고, 소리도 요란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힘을 입어 부르짖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렐 33:3).

본문 4절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며, 모든 나라가 말씀을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사 42:4)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계속 창성하여 바른 공의와 진리가 온 나라에 전파되어, 온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갈대와 같고, 꺾지는 등불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낮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귀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땅에 주의 나라가 든든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 것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는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높았다. 2002년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가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를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배전 제시, 인사 관리, 위기 관리, 민주적 정책 결정 및 실행, 도덕성)

그런데 1위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62.70,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으로 58.45, 다음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56.95점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의 조사였음에도 그 정도 평가를 받은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로 나뉜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공을 7로, 과를 3으로 본다. 이는 3선을 한 것과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 때문으로 본다.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바른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힘으로 기념관을 세운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승만을 '친척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해방과 함께 이뤄낸 건국에 준하는 업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동 정

독립교회연합 수해 위로금 전달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총회장 정인찬 목사)는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마련한 위로금을 한국교회봉사단에 전달했다고 지난 8월 21일(월) 밝혔다. 임우성 WAIC 사무총장은 "WAIC 소속 교회 중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정성껏 성금을 모아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권용철 원장 30여 년 의료선교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권용철 치과의원'의 권용철 원장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하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권 원장은 대구 동신교회 소속 의료선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의료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태권도선교단 심창수 목사 태권공연



지난 8월 8일(화) 경북 포항 한동대 효암관에서 선교연합체 선교한국이 주최한 제18회 선교한국대회가 열렸다. TIA태권도선교단(대표 심창수 목사) 단원들은 기합을 넣으며 3단 격파 시범을 보였다. '복음격파'를 성공적으로 한 단원들은 드라마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태권도 드라마' 공연을 선보였다.

탈북민 김명희 인권침해 증언



중국에서 붙잡힌 뒤 강제 복송을 당하고 세 번 탈북을 감행했던 김명희 씨(연세대 사회복식학 박사 수료)가 중국의 강제 복송과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재탈북민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북한을 떠날 당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직면했다"고 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새로운 가치로 건국된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아야

(광복 78주년과 건국 75주년에 즈음하여)
올해로 광복 78주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 75주년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전제주의(專制主義) 국가였다(세계 많은 나라들도 대부분 그랬다). 그러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 후 식민지로 36년을 지내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열강들에 의한 해방을 1945년 맞이하게 된 것이 벌써 78년이 되었다.

그리고 3년 후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 되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이런 나라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으로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8선 이북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의 전제주의 국가 체제를 지양(止揚)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은 당연히

최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신(神)의 섭리가 있었던 인물이다.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나 21세 때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독립협회와 연루되어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1895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志向)하는 미국으로 건너가, 1907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 1908년 하버드대학교 석사, 그리고 1910년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를 받는다. 이때가 35살 때였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 돌아와서는 1948년 제헌회의 의장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헌법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 같은 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반제국주의를 내세운 저항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공산화

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주장하여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1948년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 2,002만 명, 예산 54억 3,230만 원, 인당 국민소득 50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에서든, 대한민국이었다. 이를 북한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1960년 625회담에도 남한은 인구가 2,019만 명인데, 북한은 975만이었으나, 무역총액은 남한이 1억 4천만 달러, 북한은 우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5억 1천만 달러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2023년 현재, 총인구 51,55만 명, 국가 1년 예산 639조원, 국민 1인당 소득 32,661달러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비교에서도 국가의 정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을 두고, 당시 미 국무부 국동

담당 차관보였던 윌터 로버트슨은 '이승만은 빈틈이 없고 책략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또 미국의 37대 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은 당시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에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에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사학과 석좌교수는 '그는 포커폰으로서의 타고난 기술로 최대의 자릿세를 뽑아냈다'고 역사적 언어로 칭찬하였다.

마크 클라크 전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에 애국자 이승만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로 존경한다'고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 사거한 후, '조국 독립운동의 원훈(元勳)이요, 초대 건국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전 분가들은 '이승만은 외교의 달인이다. 그렇기에 세계를 알고, 여러 민족을 알고, 다양한 문화를 알았다. 나라를 지키는 능력이 비범했다. 세계 정세에 해박했던 것은 미국 동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3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 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 9월 모임

교단신한 스포츠선교회 탁구동우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9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주아가페교회(담임 이반석 목사)

청주시 서원구 용평로 93번길 40

준비위원장 기호선 목사, 총무 이반석 목사
참여문의 010-5145-3816



8·15 광복절 78주년 국가기도회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말씀중심의 한국교회로 거듭나길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이광몽 목사
예장총연 대표회장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몽 목사·이하 예장총연)는 8.15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8.15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를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든든한 안보로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과 한국교회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WCC와 로마 가톨릭과 결합하여 한국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 변질시킨 패악을 회개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

린 이날 예배는 한기여중 대표 권영자 목사의 사회로 국가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통성기도 한 후 대표회장 이광몽 목사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이광몽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국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분열된 역사를 가져왔으며, 예장총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숨 잡고 사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살피고 말씀중심의 한국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이사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한기여중 이사장 문기복 목사의 성경봉독, 한기여중 총예수기획 대표 김지혜 목사의 찬양, 굿TV소울과이어(단장 박명희)의 특송,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특강 피종진 목사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조용목 목사는 고전 4:6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본주의적 세속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성경대로의 성공개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성공이며, 간단명료한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이중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했다.

조목사는 이어 “자신이 종교다원주의의 신학 자유주의의 신학을 수용하면서도 기록된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무신론적 유훈론에 기반한 공산주의 체제는 기독교회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을 멸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통탄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한다. 종교 다원주의와 공산주의의 실상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지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하신 제한이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신 것은 명령이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대한민국과 남북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정계 지도자들을 위해’,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WCC와 혼합주의 및 이단 패망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사)에 장총연과 본대회 국가기도회를 위해’ 김병선 목사, 지광식 목사, 이후현 목사, 이종순 목사, 오선미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

를 인도했다. 이어 성결대학교 전총장 김성영 박사와 (사)기독교언론진흥 이사장 강준오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원식 목사의 축사, 이찬송 목사의 헌금잔송, 법인이사 김순중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순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피목사는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 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 예배가 무너지는 모든 것에 무너지고, 예배의 혼란은 교회의 혼란이 되며, 교회의 혼란은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피목사는 “진정한 예배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기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육신을 세우는 것이 예배자”라며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흠여지면 전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총연은 이날 8.15 광복 78주년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것과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을 회개와 협력으로 풀어나갈 것과 정부의 사회안전망구축, 한반도의 평화추진, 기독교가 아닌 가톨릭과의 신앙일치를 도모하는 한국교회의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들의 대오각성 등을 촉구했다.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 될 것 다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조정화 목사)는 지난 7월 18일(화) 오전 11시 부산시 사하구 대대로 39번지 물대동산교회(담임 옥경숙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재무 안병섭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전교회)의 대표기도,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말 2:1-9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언약은 구약의 제사장과의 언약으로 제사장인 우리 주의 종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수기 25장의 비알브를 사건을 예화로 “비노스처럼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며 영원한 제사장직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회계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헌금기도와 재무 안병섭 목사의 광고 후 지방회장 조정화 목사(순복음주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옥경숙 목사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함께한 뒤 카페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8월 15일(화) 주시랑교회(담임 강신홍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서경오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기도과 강신홍 목사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장찬단과 정세창 목사의 특송 후에 지방회 부회장 서성영 목사(복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목사는 시 37:4-6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간은 홀로 살아가 수 없으며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의지하지만 이는 잠깐의 육신적인 기쁨이요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남만이 영원하며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 수 있다”라며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힘을 얻는 것이기에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여 응답받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개교회와 교역자 치료를 위해 중보기도를 가진 후,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헌금기도와 총무 목사의 광고 후에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인도로 8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인근 카페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우에노교회 개척 이후 첫 침례식 11명 침례 받아

“우에노공원(東京上野公園)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경 우에노 임마누엘교회 백섭 목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22:37) 동경 우에노 임마누엘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일본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우에노 임마누엘교회는 2018년 12월 첫 예배를 시작하여 2019년 3월 개척예배를 드렸지만 2020년 11월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닫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도 아팠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예배를 감행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건물이 없으면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는 소망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극심하던 때인 2021년 2월부터 노숙자 두세 명과 함께 푸른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동경 우에노공원(東京上野公園)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배는 매주일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굶주림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복음만이 아닌 따뜻한 도시락과 음식을 준비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복과 신발 등 갖가지의 물품 등을 준비해 주면서,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등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 있는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며 천국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명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개척 이후 2023년 7월 24일에 첫 침례식에서 11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 침례식 예배는 차바겐 구주구리 해변에서 이영미 선교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기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찬양을 드린 후 백섭 목사(우에노 임마누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섭목사는 롬 6:3-7 말씀을 본문으로 “진실한 신앙인의 첫걸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제게 의미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과거의 죄악된 것은 버리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아울러 성도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목사는 이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침례 받은 성도는 항상 경건한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에 소망을 품은 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 마쓰가와 유우지(松川志71세) 형제는 우에노공원에서 우연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양소리를 따라 예배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대장암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대 위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치며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입에서 자절로 나왔으며 본인이 놀랐다고 합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날 때 통증이 심할 것이니 각오하고 있으라는 의사의 말에 격정했지만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날 때, 통증이 전혀 없다고 의사에게 말하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는 “주님께서 통증을 없애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도 2주일 만에 예배에 참석한 마쓰가와(형제) 성도는 가족전도에 힘쓰고 있으며 지금은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전부이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일주일을 평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도 많이 변화되고, 결코 편하지 않은 휴대용 작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도 메도를 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며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한 자매는 하루하루 밤이 올 때마다 잠잘 곳이 걱정되고 불안정한 삶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과 관광객들이 경음을 멈추고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함께 찬양을



전부이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일주일을 평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도 많이 변화되고, 결코 편하지 않은 휴대용 작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도 메도를 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며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한 자매는 하루하루 밤이 올 때마다 잠잘 곳이 걱정되고 불안정한 삶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과 관광객들이 경음을 멈추고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우상의 나라 일본 땅의 중심인 동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푸른 하늘을 지붕 삼고 오늘날 소리 높여 찬양하며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하며 나아갑니다. 일본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흥만 하길 기도합니다.

우에노 임마누엘교회
111-0031 東京都台東 千束3-26-2
백섭 선교사 080-4989-4424
이영미 선교사 080-5680-4425
*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오신 분이 주일이 걸릴 경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연락주세요

2023년 8월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역 감당

이기대공원과 송정해수욕장, 황령산 일대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설교 김용덕 목사
전임 총회장회장 정영진 목사
순복음간월교회 담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영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정영진 목사) 회원들은 지난 8월 21일(월)과 22일(화) 1박 2일 동안 부산 이기대공원과 송정해수욕장, 황령산 일대를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전임 총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 5십여 명의 동우회 회원들은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2번길 16 순복음간월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영진 목사의 대표기도, 전임 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후 8:9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족한 것이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부족한 것이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부요하심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서로 사랑함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2부 제목기도 시간에는 엄기설 목사가 '정책위원장님과 교단을 위하여', 분찬우



목사가 '국제평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최형택 목사가 '동성애 WCC 및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대체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폐지를 위하여', 기호선 목사가 '남북교회, 목회자, 청소년(미약, 취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정영진 목사의 광고 및 간담한 운동법 배우기, 전임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정책위원장님과 회원들이 제공한 식사를 함께한 뒤 회원들은 부산 이기대공원과 송정해수욕장, 황령산 일대를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답소하며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람 나눌의 시간을 갖고 1박 2일 동안 기장해변, 송도 해상 케이블카, 금련산, 용호동 등 일대를 돌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글로벌전략적동맹으로

“2023년 제 8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2023년 제8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8월 7일(월) 오전 7시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82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정훈화 목사, 본회 공동회장)에서 개최했다.

1부 예배는 박성화 목사(유곡교회)의 사회로 김언섭 장로(온양온천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공동회장 정훈화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정 목사는 롬 3:3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내게 부르짖으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데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매일 조찬기도회를 가짐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목회자와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윤봉환 목사(새남산교회)의 한글기도, 기독교포럼대표 김원진 목사(내중앙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순서는 사무총장 이진희 목사(주님의제자교회)의 사회로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배방중앙교회)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다.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두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해도 반드시 변화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



여해야 할 것"이라고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 이어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박덕수 대표회장은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될 줄 믿는다면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기도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어진 유원대학교 교수이며, 전국통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인 박성기 박사의 '한미동맹 70주년 의미와 통일비전의 함의'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박 박사는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

약은 피로 맺은 동맹으로 다른 국가들과 맺은 동맹과 다른 차이점 3가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이 지나면서 초기 안보동맹에서 글로벌전략적동맹으로 이익균형과 가치균형이 함께하는 동맹으로 발전되어 78년간 대한민국은 외세의 위협에 걱정 없이 경제에 올인함으로 번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우리의 3.1운동 기독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자유와 차별받지 않는 평등, 행복추구권의 천부인권이 당연한 전리로 보장되어 창조주 아래 민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통일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지리산 영남순복음교회에서
침례식·여름수련회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 은혜와사랑의교회(담임 조은혜목사)와 사랑이넘치는교회(담임 정환무 목사)는 지난 7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1박 2일간 지리산영남순복음교회(담임 김기곤 목사)와 교회 옆 계곡에서 침례식 및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먼저 도착예배 후 침례식을 위한 예배 및 알정을 알린 뒤 모두 계곡으로 내려가 침례식을 거행했다. 5명의 새신자들이 침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은혜가 넘치는 침례식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불신자도 있었는데 침례식을 보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영속함과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말을 전했다.

침례를 받은 초신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했으며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침례식을 통해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집사도 다시 침례를 받았다고 하여 침례를 했는데 그 집사는



세례와 다른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으며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한 은혜 넘치는 침례식이었다.

침례식후 물놀이와 교회로 와서 바비큐피터 후 성경스피드퀴즈와 장기처럼 선물증정을 하며 즐겁고행복한시간을 보내며 저녁집회를 했다. 이날 조은혜 목사는 행 2:1-4 말씀을 본문으로 '답하고 강한 비람처럼'이라는 제목의설교를 통해 "지금의 순간에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강조하며 들쭉 찢어 지어 뜨겁게합심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노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험)

(*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볼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폭염이 무색했던 청년들의 전도훈련, 구령의 열정과 결단의 기도”

은혜와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제로 열려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가 ‘복음을 전파하라’ (딤후 4:2)는 주제로 8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 성전에서 열렸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은 한여름 폭염정보가 무색하게 뜨겁고 간절했다.

첫째 날, 청년들은 개회예배와 특강을 통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함께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전례특강 시간에 바울의 전도여행 일대기를 살펴보고, 이어서 은혜와진리교회의 세계선교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바울서신을 주제로 한 전시물을 관람하고 해외선교지의 은혜와진리교회와 선교협력 교회를 위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조별모임에 참여하여 대속의 은혜를 배부시고 영혼을 거름나게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구령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총만하여졌다.

계속해서 가정복음회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관람하고 청년의 간증을 들은 후에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와 함께 전도대상자에게 전도를 위한 손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셋째 날에 당회장 조용목牧사는 ‘온전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16)는 제명으로 특강을 해주었다. 특강에서 조 목사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 복음전도의 기회, 복음전도의 대상과 범위, 복음전도의방법에 관해서 각각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기도해 주었다. 이 은혜로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청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 일듯 일었다.

이와 함께 새벽기도회, 심야기도회, 성령충만기도회에서 청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전심전력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강조

전임총회장 진등용 목사 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 집회 설교

교단 전임총회장 진등용 목사(은양은혜와진리교회)는 지난 7월 21일(금)부터 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담임 이우용 목사, 뉴욕신학대학 이사장, 뉴저지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에서 열린 집회를 인도하고 8월 6일(주일)부터 2주간 열린 해외선교 및 집회를 인도하고 귀국했다.

미국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소속인 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AG New Jersey Central Church · 담임 이우용 목사)는 1988년 9월부터 이우용 목사를 포함한 9명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10월 마지막주일에 뉴저지 West New York의 미국하나님의성회 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다.

1991년 idgefield 613 Bergen Blvd 의 개혁(Reform)교회당을 구입하여 입당예배를 드렸다. 1994년 7월 27일 포코노수양원에서 침례식(9명)을 가졌으며 지난해까지 매년 여름에 침례식을 가져오고 있다. 1994년 10월 8일에는 뉴저지도인대회를 개강했다.

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배우며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다. 목회방향은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등이다.

진등용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수 6:12-16 말씀을 본분으로 한 말씀증거를 통해 “여리고성은 공격하기 힘들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다. 성벽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돼 있어 싸워서 정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12m, 높



이 7m의 진흙 벽돌로 세워졌고 내벽은 지상 14m 높이 나 되었다. 싸워서 정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7일간 여리고성을 돌자 무너졌다”고 강조하고 7일간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의 여리고성은 반기독교인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와 잘못된 기독교 탄압 정치인, 이슬람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주민자치법이 여리고성처럼 속히 무너지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당부하고 성도들을 축복했다.

78주년 광복절 논평서

8.15일을 광복절(1945년)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절(1948년)로 정하여 국가정통성을 세우자

2023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독립투사들의 지주독립의 노력과 더불어 우방들의 도움을 통해 1945년 해방된 후 78번째 해이다. 윤석열 새 정부 2년차로 지난 정부에서 흐려진 국가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년반(2022.02-)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있다. 광복절은 북한과 남한으로 대한민국을 분단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광복은 유엔의 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졌으나 건국절은 유엔 헌에 자유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으로 이루어졌다.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건국일을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 두자는 주장으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의 영토, 국민, 주권이 없는 해외의 시한적 정부이기 때문 정상국가가 아니다. 일제 패망 후 해방되어 1948년에 유엔감시하 자유총선거에 의하여 비로소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건립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건국일 논란으로 국력소모를 그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매해 8월 15일에는 1945년 광복의 기쁨, 1948년 건국의 위대함을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및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파당(派黨)사고를 버리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살림내비는 광복을 이루어낸 우리 선조와 우방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정부에게, 북한,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다음같이 청명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은 황제가 주인인 근대적 군대 조차없는 취약한 국가로서 열강의 침략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 고종은 세계열강에 대항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으로 왕조 조선을 지키기 위해 황제 중심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1897년 사용하였다. 고종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고 자신을 황제라 칭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국가를 지킬 만한 국력과 근대적 군대를 가지지 못하여 열강 침략에 취약한 황제국가였다. 1897년부터 대한제국은 강대국들이 강행한 약소국 식민지 천탈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13년 후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되어 결국 망했다. 그리하여 한국 국민은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36년이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했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일제

에 의하여 망하게됨으로써 독립지사들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상하이에서 건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고, 단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만했다. 상해임시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일체에 의하여 강탈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2. 일제 해방 후 세워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공화국으로 세워졌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가 패망하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연합국의 승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연합국이 일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 오늘날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우리는 대한제국 통치자의 무능으로 인한 국권 상실과 국민들의 고난과 독립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해방 후 소련은 북한에 진주하여 김일성을 선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공산주의를 표방하였지만 미국은 남한에 진주하여 이승만, 이시영 등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웠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제정과 그에 따른 자유선거를 통해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제헌헌법은 첫째,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자유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인정되었다.

근현대사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하여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만했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은 너무나 컸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이 없이 모두가 고통의 세월이었다. 최민국으로 광복을 맞았던 대한민국이 해방 78주년이 된 오늘날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약소국가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3.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와 경제성장이 성공 발전한 배경에는 한국교회의 공헌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19세기 말부터 기독교 독립운동, 기화와 근대화를 통하여 나

라의 국권을 지키고자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시대를 거치면서 3.1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전국에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문맹퇴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료와 교육에 힘썼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를 개설하여 어린 시절부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인성, 지성을 갖추는 학생으로 양육하였다. 해방직후에는 당시는 자유민주주의가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70%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독립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제한국회에서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기도를 함으로써 제헌의회는 시작된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국민들은 죄악이념 대립으로 혼돈 속에서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색마다 그리고 급요철야를 통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개신교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히하였고, 6.25 전쟁과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반공의 보루가 되었다. 개신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말라”(살후 3:10)는 노동 윤리를 가르쳤고, 긴급 절약으로 자금을 축적하여 기업업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고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보기도와 생령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4.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절대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5년 만에 6.25 남침을 경험하였고, 그럼으로써 북한 공산독재의 만행을 70년 넘게 목도하고 있다. 저 먼 서구로부터 나타난 공산주의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아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독재자 감정은 일가의 사리사욕을 위해 운영되어 온 북한의 상황은 결코 한민족이 꿈꾸던 국가도 정치체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체제

를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고 욕하는 이들에 게조차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을 베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586세대 중 좌파운동권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구시대적 마르크스주의의 환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구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광복을 도운 서방국가들을 적대시했으며, 친북, 친중정책만을 고집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일찍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방된 대한민국은 그 뿌리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 우리가 미울것 누리고 있는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기념비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비문이 있다. 미국인 3만 6천명이 인종과 문화가 다른 한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한국인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만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준 것과 미군과 유엔군에 자유체제를 지켜준 것에 감사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물려주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5. 8.15일을 건국일로 정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세우자.

1945년에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으나 1948년 유엔감사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 헌법에 선포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15일 일요일에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태로서 아직도 영토, 국민, 주권이 없었다. 임시정부수립일은 건국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 근대국가(modern state)의 의미에서 비로소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이다. 이후 1949년 대한민국 건국1주년 기념식이 미국에서 뉴욕 총영사관 주최로 열렸다. 남궁영 초대 뉴욕 총영사가 참석한 대한민국 건국기념식이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건국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좌파들은 대

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보고 있다. 이중환 광복화장이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자는 것은 역사 무지다. 이는 나라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에 이어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일이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지키는 것이 선진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6. 대한민국 개개인들의 자유방임과 마약의 유흥으로부터 구원과 해방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의 성적 욕망에 따라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이기주의적 폭행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내 많은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허무함과 쾌락에 대한 무조건적 추구에 빠져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그들은 마약과 같이 정신과 육체를 해치는 많은 유흥들에 흔들리고 있으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마약사범이 판치면서 학생들까지 거기에 빠지는 천인공로할 일들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 과감히 뛰어들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욕망과 유흥들이 결코 윤택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성과 마약중독자들이 빠져있는 욕망과 유흥들로부터 벗어나 수 있는 실제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을 도워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들이 마련되고, 해방되는 제도적 영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7.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선군(先軍)주의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상생적 대화로 나오라!

북한 당국자들은 대외 개방과 상호적 대화만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만이 자신들의 입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지금의 한국과 상생의 관계로서 통일을 기할 때, 한국과 북한이 하나된 전체 한반도의 국가는 강대국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며 자유와 평등과 독립의 통일국가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주체이념이나, 세속독재

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한국과 더불어 새로운 광복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대결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와 대화하며 국제적으로 남북한이 함께 인정받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8.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적극적으로 국제 자유연대를 통하여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유를 지키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우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 기울여졌던 몇몇 세력들은 오히려 러시아를 두둔하고, 침략의 부당함에 눈감고 정부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 미미한 독립의 노력에 연합군의 희생과 승리가 결정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자유와 국가를 위협받는 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눈을 감는다면, 지난 날 했던 자유세계에 대한 빚을 망각하는 국민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0일-15일 리투아니아의 나토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 방문 중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한국의 자유연대 약속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전쟁 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를 지킨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국제적인 신용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현정부의 의도는 자유연대의 실천으로 러시아의 침략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정치적 계산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에 관여해서 침략의 고통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자유연대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정부, 그리고 한국교회는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정의의 세계적 보편성을 기억하며, 통일의 희망을 갖고,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의 필요성을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광복절이 선사한 자유와 해방의 이념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되어주길 기원한다. 그리고 우리 세계와 인류의 자유와 독립에 기여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14일
살림을 꾸리는 나비행동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훈련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장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밥나눔지역을 하는 소셜서비스 전문NGO (사)월드뷰티핸즈(이사장 정현일)와 (사)해동는마음, 신현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소장 최에스더 교수, 엘드림노인대학장)가 함께 8월 8일 마포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사랑의 밥사랑잔치 및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로 어르신들을 섬겼다.

정현일 이사장은 "우리 이웃의 이름을 나누며 고독 생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께 진정한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소통의 도구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맡은 정만혁 교수(KBSI연구원)는 "노령층이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올바른 정보를 탐색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엘드림 노인대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에스더 학장은 "엘드림 노인대학생들이 인문학적 교육을 통해 문화 향수를 마음껏 누리며,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을 지속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엘드림노인대학 찬양단과 최세진 영양사와 최세연 사무국장(해동는마음), 최원희 강사(엘드림노인대학), 이상진 노인대학 반장, 현기순 부반장 등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제3회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아신대, 미디어에 관심 있는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아신대학교(이하 아신대) 교육연구소가 '제3회 아신(ACTS)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회 아신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회교육과 기독교학교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공유함으로 다양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지난 공모전에서는 교사와 사역자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

지며 미래 사회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는 열리는 제3회 공모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디어 은사들이 발휘된 창의적이고, 탁월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들이 많이 출품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이 실시되는 제3회 공모전부터는 공모 대상의 변화가 있다. 기독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인재들이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자유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트전도 방주호

가족세트 방주호에 올라타기만 해도 복이 임한다. 수고요, 헌신이라.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영육의 생기 활성화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 마치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네 일을 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이다. 잘 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전도자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히 여겨 쓰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다. 우리를 구속 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값을 길어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

가족세트 총재 박영수 목사의 불타오르는 구령들은 어느 누구라도 바라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게는 나의 요구다. 전도는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박영수 목사의 일념은 변함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가족세트전도 스태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선교물품을 아낌없이 제공 해주는 가족세트 대표회장 홍정모 목사. 기도로 함께하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세트 대표고분 피종진 목사. 영혼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 하는 여성대표 가족세트 전도 여성고분 임은선 목사.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지선협 대표총재. 가족세트전도 고분 강영준 목사.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말씀전도왕 이효상 교수. 온 열정을 다 쏟으시는 지혜로운 스태프 마스크전도왕 김동일 목사. 헌신의 노고를 다하는 새벽 전도왕 박라미 권사. 웃음으로 치료하는 웃음 전도왕 이웃을 목사. 춘전에서 가족세트 박영수 목사 전도열에 도전받아 날마다 전도하다가 땅을 일만 삼천 평 받은 실천전도왕 김지훈 목사. 가족세트전도는 로부터 말하는 로모 전도왕 이효선 목사. 가족세트전도 훈련받고 신앙동에서 그룹으로 전도하는 가족세트전도 그룹전도왕 한택수 목사. 곳곳에서 물심양면으로 가족세트 전도 위해 동참 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한 전적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는 귀한 협력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이렇게 돕는 일들이 전도에 동참 하는 것이다. 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또한 문서로 최선을 다하는 목양신문 박한국 국장. 수연문화사 유동규 대표. 협력해 주시는 귀한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아낌없이 정보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유명희 목사, 김윤혜 목사, 홍종국 목사에게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린다.

가족세트전도 총괄 본부장
이수 교수



8월13일 3개 교회서 생명나눔예배 드려

서울영동교회 은곡교회 천성교회 성도들 장기기증 약속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가 8월13일, 서울영동교회를 비롯한 전국 3곳 교회에서 성도 355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영동교회(정현구 목사)는 1, 2, 3부와 청년예배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정현구 담임목사는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뇌사자로부터 폐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한 장로의 사연을 소개했다.

정 목사는 "건강의 강도를 맞아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이웃들을 위해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며, "생명나눔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될 사랑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나도, 나도 살리는 사랑이다"라고 생명나눔 운동에 함께할 것을 권면했다. 이



에 성도 24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물길을 열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은곡교회(고한울 목사) 역시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며 1부, 2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고한울 목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의 축복을 고통 받는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88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높였다. 이 밖에도 대구시 수성구의 천성교회(이권희 목사)도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이웃사랑의 감동을 이어갔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가까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시역에 동참하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달라"고 전했다.

이단 단체에 뚫린 작은 도서관

기쁜소식선교회 작은 도서관 포교의 연장 활용 의혹 제기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기소선) 측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포교의 연장선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기소선의 포교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엔 마인드교육이 있다. 마인드교육은 기소선 측이 인성교육을 주장하며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

렇지 않았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마인드강연', '마인드워크숍' 등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마인드'를 주력으로 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기쁜소식선교회 건물 내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기도 한다. 대전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에디슨의 작은도서관', 상세 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당리6번길 40(선동동) 1층'이다.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기쁜소식선교회'가 나온다. 확인 결과 기쁜소식선교회 내에 '에디슨의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위치한 '스캐치북 작은

도서관' 역시 기쁜소식선교회와 주소와 일치했다.

'하동 하버드 작은도서관'은 '하동한마음살버희 할링캠프'를 실시하면서, ▲'하동신문'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블루핸즈 하동점에서 후원을 받았다.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기망당한 셈이다. 실제로 후원을 했던 한 곳의 경우 "종교 관련 행사인지 전혀 몰랐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3년 7/8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돌봄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생략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



뉴스 해설자 로웰 토마스(Lowell Thomas)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 그램에서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방송을 시작하여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웰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며,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인사를 해 오면 지체하지 않고 밝은 표정과 명랑한 목소리로 “잘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나쁜 소식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큰 소식도 작은 소식도 사람들이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큰 소식이 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빅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온 일본 왕 히로히토의 특별선언 ‘무조건 항복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나쁜 소식,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니다.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줄여서 복음(福音)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걸 같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나심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에 품고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사 40:9)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우리 예수님

막힌 답을

허무시는 우리 예수님.

천국의 막힌 답 보혈로 허무시고,

불쌍한 인생들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먼저 우리에게 화목을 누리게 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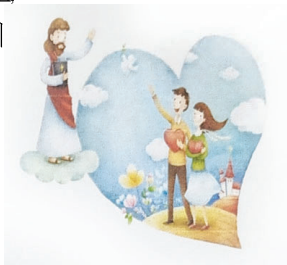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케 하는 직책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셨네.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볍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마음 마음 충만케 하시고

목적 알고 가는 인생 축복이여라.



영혼을 돌아보는
직분 주심에 감사하여
그 마음을 고백하다.

사설

다툼에 앞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1951년), 한미 동맹(1953년)이라는 현재 동북아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라고 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32%를 차지하는 3국 정상에 매년 만나 군사, 외교부터 반도체 공급까지 논의하는 강력한 경제, 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한·미·일 협력은 각국 국내 정치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는데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평가로는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냄으로써 미국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

미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국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낸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됐다’고 호평들을 했다.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AFP통신 등)

ABC 방송은 17일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눈길을 끌었다’며 ‘그간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난하며 시위를 요구해 왔으나 윤 대통령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칭하며 양국 안보가 깊이 관련돼 있고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를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놀라웠다’고도 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경축사를 보고 나라 팔아먹은 을사 오적’이라고 비난하는가하면, 역대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고 폄하를 한다. 파트너라고 한 것을 일본을 칭찬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수준차이 인가? 아니면 국제적 안목 차이인가를 모를 일이다.

하긴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들 ‘돌팔이’라고 하는가하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과학과 상식을 무시하는 무지와 이념적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니 뭐라 말하겠는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굴종하면서 국내에서는 앞뒤 안 가리고 비난과 폄하만 일삼는다. 왜? 강성 지지충만을 의식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한 발이면 전체 주민을 석 달 동안 먹

여 살릴 수가 있다. 그런데도 파퓰러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심지어는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왔다고 영국의 BBC가 보도를 했다. 평양 300만 인구만 볼들면 정권 유지에 이상 없다고 떠들던 김정은이다. 그러나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왔으니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아무리 지령이 같은 사람도 참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괴담과 선동에만 열을 올린다. 북한은 대화로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대화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머저리가 따로 없다. 평화는 힘이 아니라 대화로 한다고?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결과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칭찬 받을 일이며 국력을 높이는 일이며,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제회의에 가서 무엇을 얻어왔나? 중국에 국빈 초청을 받고 가서 무슨 국가적 이득을 가지고 왔나? 8개 혼란에 실명되도록 기자가 진탕 얻어맞고 왔어도 찌소리도 못하고 왔는데.. 북한에서 ‘살은 소대기라’고 조롱해도 찌소리도 못하고.. 그런 것은 안 보이니 보라

머리속에 든 것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 지금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의 삼성의 기초를 만든 것은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고 이건희 회장은 ‘완전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며 ‘마누라와 지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변화’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변화’가 필요하다.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 나라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권 카르텔’과 좌파 운동권 논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이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2-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2)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9월 7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목
총 무 목사 정 진 군